

「2022년 제3회 중앙교육연수원, 새로ON 미래路」 운영 계획

□ 목적

-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해 함께 고민·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개강좌 및 인문예술 킨레버 프로젝트 마련
-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, 주제별로 인지도와 전문성 높은 강사나 예술가 등을 섭외하여 효과성 극대화

□ 운영 계획

「이달의 강좌 주제는? #세대공감 데이트」

- 틀림이 아닌 다름의 가치,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데이트 -

- 근래 ‘심심한 사과’란 말의 뜻을 일부 네티즌이 ‘지루한 사과’로 오해하면서 문해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(...) 문해력 부족 일화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독서량 부족과 한자 교육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. (...) 반대 입장에서는 “언어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잘 안 쓰면 없어지거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 만큼 지나친 기우”라는 의견도 있다.
- 배윤경(매일경제), <심심한 사과 이어... ‘부부가 무료하다’는 공짜란 의미?> (’22.9.12.) 中 -
- 세대 갈등이 너무나 쉽게 점화되는 요즘, 오히려 의식적으로 ‘다름’과 ‘틀림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. 요즘 젊은이들이 사흘, 나흘, 금일을 모르는 것과 기성세대가 알잘딱깔센, 누칼헛 등의 신조어를 모르는 게 과연 같은 무게와 심각성으로 취급될까? (...) 내 기준에서 상식인 것을 모른다고 상대를 저격한다면 그건 나의 상식을 강요하는 폭력이자 무식일 수 있다.
- 김지원(오마이뉴스), <심심한이 불러 온 문해력 논란... 불통은 가장 쉽다> (’22.9.4.) 中 -
- 언어에 대한 불신의 골은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더욱 깊게 파이고 있다. 사람들은 코로나를 피하고자 더 작은 ‘동굴’로 찾아들었고 온라인에선 특정 성향의 정보만 제공하는 ‘필터 버블(Filter Bubble)’이 또 다른 동굴을 만들었다. (...) 자신이 속한 곳에서 쓰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불신을 품고 그 배척이 적의로 표출되는 악순환이 증폭된 것이다.
- 양승준(한국일보), <“명복을 빈대 ㅋㅋ” ‘심심한 사과’가 드러낸 불신의 시대> (’22.9.12.) 中 -

- 일시 : '22. 10. 26.(수) 14:00~15:40
- 장소 : 배움관 304호(온라인 강의실)
- 방법: 온라인 라이브 강좌(유튜브 활용), 참여자와 쌍방향 소통
 - 사전 접수검토한 예상 질의 바탕으로 몰입감 있는 실시간 쌍방향 대화 구현
- 대상: 공무원, 대학 직원, 공공기관 직원, 기타 관심 있는 누구나
- 세부 진행방식
 - 강좌 후반부에 질의응답 및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, 채팅방을 활용한 강사-토론자-수강생 상호작용 활성화
- 주요내용
 - ① 강연 : “언어 장벽을 통해 본 세대차이, 세대갈등에 대한 고찰”
 - 강사 : 김진웅(경북대 교수)
 - ② 대화 및 질의응답 : “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”
 - 하영자(원내교수, 사회), 김진웅(경북대 교수) 등

□ 시간표(안)

시 간	소요(분)	내 용	비 고	
10.26. (수)	13:40~14:00	20'	▪ 등록(유튜브 접속)	
	14:00~14:05	5'	만 남 ▪ 인사말씀	
	14:05~15:40	95'	강 연 『언어 장벽을 통해 본 세대차이, 세대갈등에 대한 고찰』 김진웅(경북대 교수)	
			대화 및 질의응답 『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』 하영자(원내교수, 사회) 김진웅(경북대 교수)	▶ 포럼 참여자 소통 - 실시간 쌍방향 소통 - 사전 질의 채팅창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 활성화